

광복이후 비금도 대동염전 개발과정과 사회적 가치*

최 성 환**

1. 머리말
2. 광복이후 사회적 배경과 천일염전 개발 절차
3. 비금도 대동염전 개발과정
4. 섬 지역 사회적 가치와 활용 방안
5.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비금도 대동염전 개발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광복 후 한국 근현대사의 한 단면과 섬 지역 사회상을 살핀 것이다.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첫째, 광복 후 사회적 배경과 염전개발의 절차를 검토했다. 둘째, 대동염전이 개발되는 과정을 분석했다. 셋째, 대동염전에 담긴 섬 지역 사회적 가치와 활용방안을 살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안군에 소장된 염업 관련 기록물 분석과 개발에 참여한 주민 인터뷰를 병행했다.

광복 후 남북분단으로 남한 사회는 소금부족 현상이 심각했고, 특히 어업이 발달한 섬 지역에서 소금생산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했다. 이에 정부는 민간차원의 염전개발을 권장하였고, 그러한 흐름 속에 대동염전이 개발되었다. 본고에서는 염업관련 기록물 분석을 통해 대동염전 관련조합,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9-361-A00007). 본고는 2016년 8월 19일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주최 ‘섬의 인문학 학술대회(주제: 섬사람과 소금)’에서 발표 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교수(lovesum@mokpo.ac.kr)

규약, 공사 계획, 간척지 확보와 염전시설 도면 등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대동염전은 1949년 처음 기초가 완성된 이후 몇 차례 확대 과정을 거쳤고, 주도자는 면장 출신 ‘명승주’였다. 원뚝 조성 관리자는 ‘박입하’였고, 염전 공사 기술자로는 ‘박문옥’ 등이 활약했다. ‘명일담’은 총염부장을 맡아 대동염전을 관리했다. 대동염전에 담긴 섬 지역 사회적 가치는 ‘염전 개발의 성격’, ‘공동체 문화’, ‘섬 주민의 경제적 기반’, ‘현 운영 주체’, ‘근대문화 유산’ 5가지 측면에서 살폈다. 대동염전은 섬사람들 스스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자신들의 경제활동 기반을 개척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구전으로만 전해오던 대동염전 개발과정에 대해 처음으로 사료적 분석을 시도한 것이 본 연구의 성과이다.

* 주요어: 대동염전, 소금, 섬, 비금도, 염전개발

1. 머리말

한국에서의 천일염전은 1907년 주안염전이 시초이고, 이후 일제강점기 천일염전 개발과 운영은 경기이북 지역에 집중되었다. 때문에 광복이후 남북이 분단되자 남한사회는 심각한 소금부족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차원의 천일염전 개발이 진행되었다. 그 중심 지역은 전남 서남해 섬 지역이었다. 광복이후 섬 지역에서 일어난 천일염전 개발과정에 대한 문제는 남북분단·한국전쟁 등으로 대변되는 격동기 한국사회의 한 단면을 살핌과 동시에 섬 사회상에 대한 연구범위를 근현대사로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본 연구자는 광복이후 섬 지역 천일염전 개발과정을 통해 당시 사회상과 섬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살피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광복 이후 최초로 섬에 천일염전이 개발되고 확산되는 과정을 분석 한 연구와 천일염전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섬사람들의 이주현상과 공동체 문제를 주목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¹⁾ 본고는 선행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진행한 후속 연

구에 해당된다. 연구 대상지는 신안군 비금도의 대동염전이다.

우리나라 서남단의 섬 신안군 비금도는 목포로부터 54.5km 거리에 있다. 면적은 48km²로 신안군에서 6번째로 큰 섬이며, 해안선 길이는 87.84km이다. 2015년 12월말 기준 3,807명이 거주하고 있다. 섬의 형세는 동서가 길고 남북이 짧은 모양이다. 대동염전은 비금도의 동부 쪽에 자리하고 있다. 1947년부터 조성논의가 시작되어 1950년대까지 몇 차례 확장공사를 거쳐 현재 형태가 완성되었고, 그 후 지속적으로 주변에 염전이 확대되어 현재 대규모 염전단지를 이루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비금도 대동염전 개발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광복 후 한국 근현대사의 한 단면과 섬 지역 사회상을 살핀 것이다.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첫째, 광복 후 사회적 배경과 염전개발의 절차를 검토했다. 둘째, 대동염전이 개발되는 과정을 분석했다. 셋째, 대동염전의 사회적 가치를 살피고, 활용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본고에서 ‘사회적 가치’라는 용어는 ‘섬’이라는 공간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과거 생활상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의미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근현대 시기 신문기사와 각종 자료, 천일염전 개발과 관련된 신안군 보관 행정 문서, 민간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등을 분석하였고, 대동염전 조성당시 참여했던 비금도 주민²⁾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 조사 내용을 활용하였다.

2. 광복이후 사회적 배경과 천일염전 개발 절차

먼저 대동염전이 개발되는 시기의 사회상을 당대 신문기사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겠다. 일제강점기 대부분의 천일염전이 경기이북에 집중 조성되

1) 최성환, 「비금도 천일염전 개발과정과 사회적 확산」, 『島嶼文化』 40, 목포대학교 도서관 화연구원, 2012; 최성환, 「천일염전 개발과정을 통해 본 섬사람들의 이주 현상과 공동체적 특징」, 『서강인문논총』 41,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2014.

2) 고 명일담(1924년 생), 김호운(1933년 생), 최관출(1934년 생) 등 대동염전 조성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주민들을 인터뷰하였다.

있기 때문에 광복이후 남북 분단으로 인한 남한지역의 소금 부족현상은 매우 심각했다. 정부에서는 외국산 소금을 수입하여 유료 배급하는 방식으로 위기 상황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는 상황이었다. 동광신문³⁾ 1947년 6월 10일자 기사에는 당시 소금 부족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다.

일반 부민이 오랫동안 학수고대하고 있던 춘기용소금은 드디어 지난 7일 입하되었다. 즉 마카오로부터 들어 온 소금은 수송관계로 부산에 정체되었던바 금번 목포를 경유하여 광주전매지국에 입하되었는데, 수량은 11,380 가마니. 1인당 1근씩의 소금이 오는 15일부터 일제히 배급할 예정이고, 6월내에는 배급을 완료한다고 하며, 배급요금은 1근에 1등은 6원 7전, 2등염은 6원 30전이라 한다.

위 기사 내용처럼 당시에는 특정일을 지정해서 소금을 유료로 배급을 해야 할 만큼 상황은 심각했다. 이러한 일반적인 양상 외에 섬 지역에서의 소금 필요성은 더욱 절실했다. 중앙신문에서 1947년도 비금도 어업관련 상황을 취재한 아래 기사에 가장 잘 표현되어 있다.

南海漁場走破記⑤ 豐獲에도 頭痛, 소금不足으로 處分難

조기잡이가 끝나면 천여척의 어선들은 뱃머리를 남으로 돌려서 비금도의 원평어장으로 강다리를 잡으려고 몰려온다. 강다리 잡이는 6월초부터 7월까지 계속된다.(중략) 바다는 얼마든지 넓고 고기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고기를 대량으로 잡어도 소금과 얼음이 없어서 부득불 찐값으로 넘겨 버려야하고, 그나마 이내 처분 하지 못하면 그냥 싹 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원평어장에는 기름 짜는 공장도 생겼으나 그만한 공장으로는 바다에서 건져 내는 고기를 이루 처분 할 수도 없다. 고기를 비료로 만드는 데도 역시 소금이 필요하건만 소금공급은 극소량에 지나지 않고 얼음은 구경조차 할 수 없으니 참으로 조선수산업계의 애로는

3) 광복 후인 1945년 10월 10일 광주에서 『光州民報』로 창간되었고, 1946년 7월 『동광신문』으로 제호를 바꾸었다. 전남지방의 소식이 많아 당시 소금생산과 관련된 내용이 꽤 남아 있다.

여기에 있다 하겠다.(비금도에서 본사특파원 정비석)⁴⁾

광복 이후 일본인들이 물러간 조선의 바다는 그야말로 황금어장이었다. 그러나 남북 분단으로 인해 남한지역의 소금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되었다. 특히 어로활동이 활발한 해안가에서 소금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턱없이 모자라는 형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입산 소금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전매국에서는 소금증산을 위해 민간염전의 소금생산을 장려했다. 동광신문 1947년 4월 17일 기사에는 사영염전의 생산을 장려한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전매국에서는 금년도 소금증산을 위하여 각 방면으로 대책을 추진시키고 있던 바 사영염전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본국에 설치된 염업협회를 강화하고 지방 전매국 소재지 대구 서울 전주 염급각지국 소재지에 서 협회지부를 설치(이하 생략)

정부에서는 민간주도의 천일염전 개발을 권장하였으며, 이에 대한 관리를 위해 염업협회를 발족하여 운영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일제강점기 화염에서 천일염으로 소금생산 방식이 변하고, 중심지역이 경기이북에 집중되었던 이유로 소금생산지로서의 위상에 큰 타격을 받았던 전남의 섬지역이 다시 소금생산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광복 이후 천일염전의 개발권이 민간에 개방되면서부터 섬에서도 천일염전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민간차원에서 가장 먼저 천일염전 개발에 성공한 곳은 현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도였다. 비금도에서는 섬 주민(손봉훈과 박삼만 등)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천일염전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최초의 성공사례는 1946년에 수림리의 화염터에 조성된 ‘1호염전’이다. ‘1호염전’의 성공이후 인근 섬과 전남 해안 지역에 천일염전이

4) 『중앙신문』, 1947. 6. 15.

본격적으로 보급되었다.⁵⁾ 대동염전의 개발 역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 시기적으로 소금공급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었고, 특히 섬 지역에서는 어업의 활성화로 소금의 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었다.

민간차원의 천일염전 개발이라 할지라도 정부 당국의 허가와 관리를 받아야 했다. 현 신안군 염업관련 문서철에는 광복 직후 염전개발 관련 된 기록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이를 통해 광복 후 혼란의 상황에서도 천일염전 개발과 관련 절차는 나름대로 엄격하게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존하는 기록물들을 분석 한 결과, 광복 후 염전개발 허가 절차와 관련 된 일반적인 문서의 유형은 <표 1>과 같다.

<표 1> 광복 후 서남해 섬 지역 천일염전 개발관련 문서

문서유형	문서 내용	관련 세부 내용
개발조합문서	조합원 명부	주소, 직책, 성명, 연령, 직업
	조합 운영 규약	명칭, 목적, 출자금, 규제사항
	조합 회의록	회의 개최시기와 의결내용
염전개발문서	사업계획설명서	천일염전 개발 취지
	세부사업계획서	위치, 염전 형태, 소요예산, 공사 계획, 도면 등
염제조허가문서	염제조허가신청서	주소, 염전위치와 면적, 시설 등
	서약서	신청서에 대한 서약, 대표자 날인
	민제천일염제조 허가신청자조사서	소유, 토질, 하천관계, 저수지 등
	염제조허가서	신청자, 허가 염전 위치 등
	축조상황조사서	허가 후 염전축조상황 조사 명세도

이러한 기록물들을 통해 천일염전 개발의 일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겠다. 당시 서남해 섬 지역 주민들이 천일염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목포에 있

5) 비금도 최초 천일염전 개발되는 과정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필자의 선행연구 성과인 다음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줄고, 『비금도 천일염전 개발과정과 사회적 확산』, 『도서문화』 40,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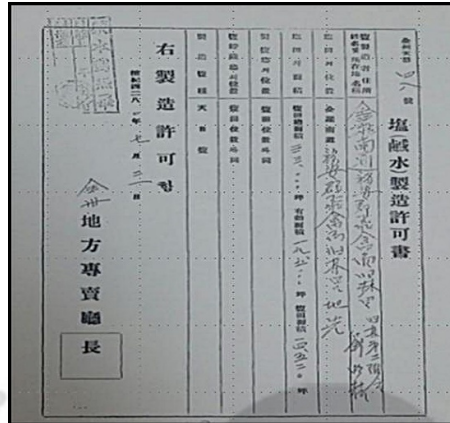
던 전매지국을 거쳐 전주 전매국에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목포지국장은 섬 주민들이 제출한 관련서류를 통해 허가사항을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전주 전매국에 제출하고, 전주 전매국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하였다.⁶⁾ 신청 서류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설명서, 공사계획서, 관련 도면 등이 첨부되어야 했다. 이러한 법적 허가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먼저 천일염전 개발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필수였다. 조합원 명단과 함께 조합운영을 위한 규약을 제정해야 했다.

조합원 관련 서류는 당대 기록으로 볼 때 분량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 유사한 구성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합원 명부의 경우 각 조합원의 주소, 역할, 성명, 연령, 직업이 표시되어 있으며, 역할은 組合長, 理事, 書記, 技術員, 監査, 評議員, 組合員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천일염전 개발조합 규약의 내용은 현재 확인되는 가장 빠른 시기 조합인 1947년 4월 旧林第二製鹽組合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 명칭, 제2조 위치, 제3조 조합원 자격, 제4조 목적, 제5조 의무, 제6조 자금出資, 제7조 勞力 出資, 제8조 임원, 제9조 조합장 역할, 제10조 이사 역할, 제11조 감사와 평의원, 제12조 임기, 제13조 선거권, 제14조 조합원 규제, 제15조 총회, 제16조 탈퇴, 제17조 결산일, 제18조 사무소 비치 서류, 제19조 규약변경, 附則 20조 실행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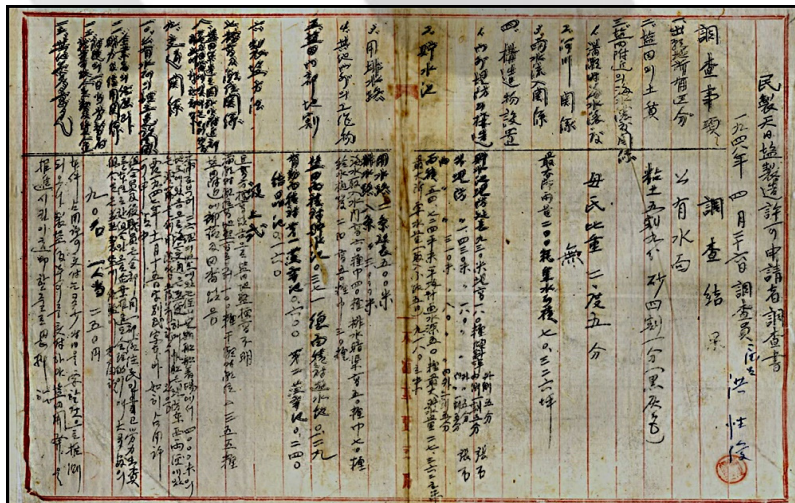
다른 조합의 규약 내용도 대부분 이와 유사하다. 자격을 갖춘 민간 조합에서 ‘염제조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전매국에서는 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대비하여 여러 항목을 꼼꼼하게 분석한 ‘민간천일염제조 허가 신청자 조사서’를 작성한 후 ‘염(함수)제조허가서’를 발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1947년 당시 ‘염(함수)제조허가서’의 서식은 <그림 1>과 같다.

6) 신안군 소장 기록물, ‘1947년 제염허가신청에 관한 건’ 등 검토내용.



〈그림 1〉 1947년 염(함수) 제조허가증

허가서를 발급하기 전에 먼저 ‘민제천일염제조 허가신청자 조사서’ 작성이 선행되었는데, 광복 후 초기 관련 서식 사례를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1948년 민제천일염제조 허가신청자 조사서 사례

전매국에서 크게 13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신청자의 구비여건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 내용을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허가서를 발급하는 형태이다.

당시 천일염전 개발 허가절차는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旧林第二製鹽組合⁷⁾의 경우 규약은 1947년 4월 1일이 실행일로 되어있다. 약 3개월 후 ‘천일염제조허가신청서’가 7월 1일자로 목포전매지국에 발송되었다. 목포전매지국에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 후 ‘제염허가신청에 관한 건’이라는 문서를 7월 15일자로 전매국으로 보낸다. 최종 관련 허가는 1947년 7월 21일자 전주시방전매청장 이름으로 발급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방식으로 광복이후 민제 천일염전 개발의 허가과정이 진행되었다.

3. 비금도 대동염전 개발과정

신안군에 보존되어 있는 천일염전 문서 중에는 대동염전 개발과 관련된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여러 시기의 문서들이 혼합되어 있는데, 본고에서는 개발당시 대동염전 조합의 규약, 조합원 명단, 사업계획서, 허가신청서, 서약서, 허가서 등을 분석하여 개발과정에 대한 사료적 접근을 시도하려고 한다.

먼저 개발조합의 성격과 활동 내력에 대한 내용이다. 조합원들의 관리를 위해 자체 규약을 제정하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천일염전 개발을 추진했다. 정식 명칭은 ‘大東天日製鹽開發組合’이었다. 일반적으로 대동염전은 대동단결을 의미하는 ‘大同’이라는 의미로 알려져 왔는데, 기록에서 확인되는 공식 명칭은 ‘大東’이다. 비금도의 지형상 대동염전의 위치가 동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붙여진 것 같다. ‘大同’이라는 의미는 후대에 대동염전의 가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별칭처럼 새롭게 덧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7) 신안군 소장 기록물 중 旧林第二製鹽組合의 관련 서류가 비교가 일괄로 잘 남아 있다. 제시한 일정은 관련 기록물의 날짜를 토대로 한 것이다.

‘대동천일염제염개발조합’의 규약과 관련해서는 1948년도에 작성된 대동염전 조합원 규약이 확인된다. 총 제7장 제32조로 구성되어 있다. 종이 5장 10면 분량이며, 수기로 기록되어 있다. 규약은 조합의 명칭과 목적, 조합 운영 위한 임원, 출자금, 규약을 어긴 조합원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은 유사한 시기 다른 천일염전 개발조합의 규약과 대체로 비슷하나 세부 조항이 훨씬 더 많고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규약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조합원의 자격(2장 7조)이다. “비금면에 거주하고 본 조합 사업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대개 다른 염전의 경우는 염전 개발 지역의 거주 주민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旧林第二製鹽組合의 경우 조합의 자격이 “舊林里 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다.⁸⁾ 반면 대동염전은 비금의 동부 쪽에 조성되는 염전이지만 비금도 전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단 비금도의 주민 외 외지인은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출자(3장)는 호구당 10만원으로 결의되어 있고, 出資口數(3장 10조)는 1500구였다. 1947년에 만들어진 ‘旧林第二製鹽組合’의 경우 출자구수가 25구였던 것에 비하면 대동염전이 얼마나 대규모 염전으로 기획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8장 부칙 제31조에 “본 조합 규약은 단기 4281년 3월 26일부터 실시함”으로 기록되어 있다.

대동염전 개발계획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당시의 사업계획서가 남아 있다. 표지에 ‘비금면 대동천일염전개발사업계획서(이하 계획서)’라는 이름과 함께 대동천일염전조합 조합장 명승주의 이름이 표지에 표기되어 있다. 구체적인 공사계획과 관련된 도면이 첨부되어 있고, 염전개발의 위치, 주요시설, 관련 예산 등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다. 계획서에 수록된 내용의 목록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제1장 현황/ 제1절 위치 및 면적, 제2절 지세 및 공질, 제3절 조위, 제4절 기상

8) 신안군 소장 기록물, 1947년 旧林第二製鹽組合 규약 문서.

제5절 교통, 제6절 염전개발로 인하여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
제2장 공사계획/ 제1절 방조제, 제2절 수문, 제3절 저수지, 제4절 소요용수량
제5절 내부구조, 제6절 수로, 제7절 교량, 제8절 건축물 및 기타 시설
제3장 사업비예산과 공사비설계서
제4장 사업비수지예산 / 제1절 채합기 및 생산예산고, 제2절 수지개선,
제3절 첨부도면

이 계획서 제1절 위치 및 면적 부분에 적힌 대동염전의 면적 관련 기록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대동염전 면적표

명 칭	町	平方米	坪
총 면 적	131.2	1,204,457	364,348
염전유효면적	75.8	751,940	227,462
저수지면적	33.7	334,500	101,186
기타면적	11.7	118,017	35,700
점용허가면적	183.7	1,826,461	561,196

130헥타르(ha)가 넘는 대규모 염전이다. 염전, 저수지, 기타면적을 포함한 수치이며, 점용허가면적은 그보다 더 넓은 180헥타르(ha) 규모이다.

한편 계획서의 제6절에는 ‘염전개발이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이 서술되어 주목된다. 서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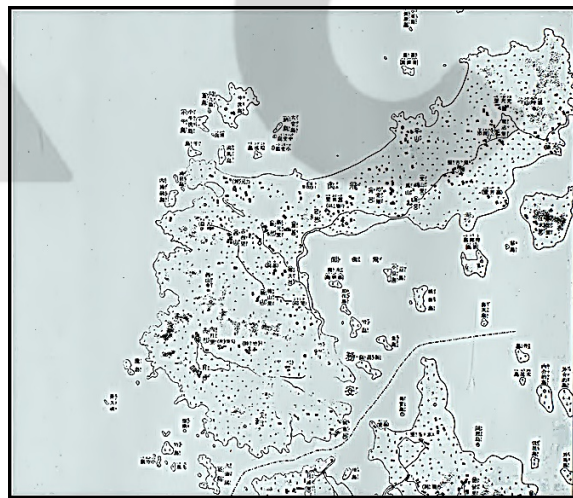
“본 염전계획지의 주변에는 煎熬鹽田이 산재함은 물론이요, 洞民 일동 총 발기하여 島嶼에 모범적인 염전을 계획함에 있음으로 지방민의 찬동은 물론이요 境界에는 구 방조제가 有함으로 海淡水의 침입을 渡斷하고 있음으로 인접지에 미치는 악영향은 전무함.”

대동염전 개발지 주변이 이미 기존에 전통방식 염전인 화염지가 있는 곳이었다는 점과 천일염전 개발을 위해 해수가 내륙으로 침입하는 것이 막는 것이 중요한 허가 조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특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섬 전체 주민이 나서서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함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제2장 공사계획 부분에는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수치가 항목별로 전부 명시되어 있다. 사업비 예산과 수지에 대한 부분도 꼼꼼하게 채워져 있다. 마지막 첨부 도면 부분에는 ‘위치도’, ‘교통안내도’, ‘염전계획평면전도’, ‘내부지할표’, ‘공중별설계서’가 첨부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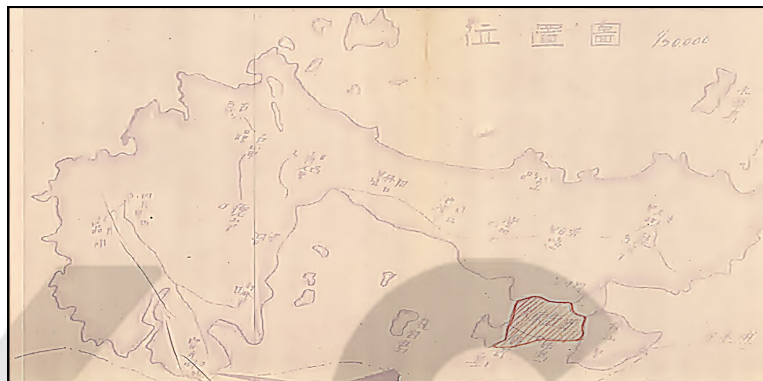
이어서 ‘계획서’에 첨부된 위치도를 바탕으로 대동염전이 개발된 공간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겠다. 비금도 사람들은 180헥타르(ha)의 대지를 어떻게 확보하였을까? 비금도는 광복이후 대규모 천일염전 개발이 곳곳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큰 지형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원래의 섬 모양은 큰 차이가 있다. 천일염전 개발 전의 원래 지형에 대해서는 1926년에 발행된 비금도 지도인 <그림 3>⁹⁾이 참조가 된다.



<그림 3> 1926년 비금도 지형도(1/5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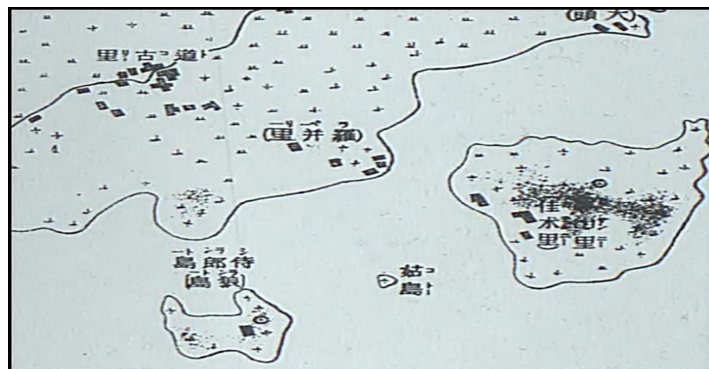
9) 朝鮮總督府 陸地測量部 1926년 발행, 朝鮮五萬分一地形圖[22-2-4] : 飛禽島(梅加島四號).

이 지도를 바탕으로 대동염전 ‘계획서’에 표기된 위치를 비교할 수 있다. <그림 4>는 개발당시 ‘계획서’에 첨부된 대동염전 위치도이다. 광복이후에도 <그림 3>의 1926년 지형과 매우 흡사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림 4> 대동염전 위치도(비금대동천일염전 개발사업계획서)

1926년도 지도에서 해당 부분만을 확대해 보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 1926년 지형도 중 대동염전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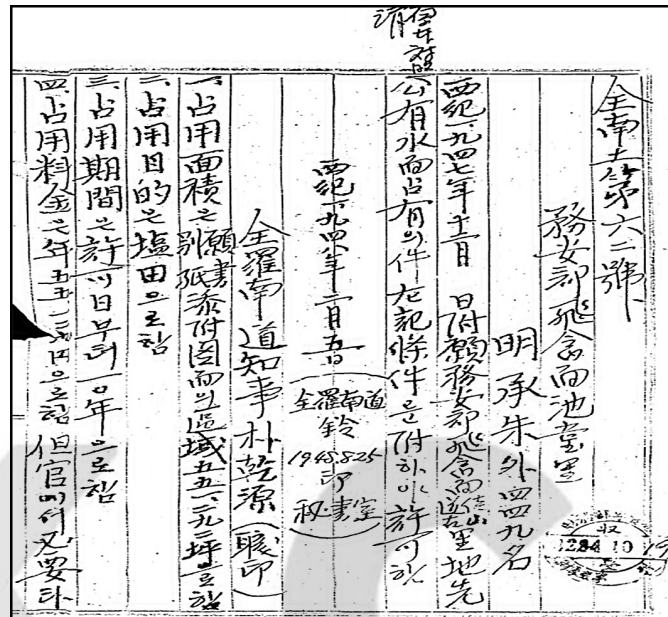
당시에는 도고리 해안 앞쪽에 佳山島와 侍郎島가 별도의 섬이었다. 그사이에 姑島가 있다. 비금도 사람들은 도고리와 가산리의 지선을 연결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대규모 염전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림 6>은 관련 문서 자료 중 대동염전을 조성할 간척지 표시도이다. 매립간척지 180町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178ha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면적이다.



〈그림 6〉 대동염전을 조성할 간척지 표시도

가산도에서 고도를 거쳐 시랑도를 연결하여 방조제를 막고, 다시 도고리 당산마을 서쪽의 마산까지 연결시켜 간척지를 조성하는 방식이었다.

<그림 7>는 대동염전 개발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 허가와 관련 된 문서이다. 신청자는 무안군 비금면 지당리 명승주 외 499명의 명의로 되어 있다. 허가는 전라남도지사 박건원의 명으로 되어 있다. 점용면적은 551,292평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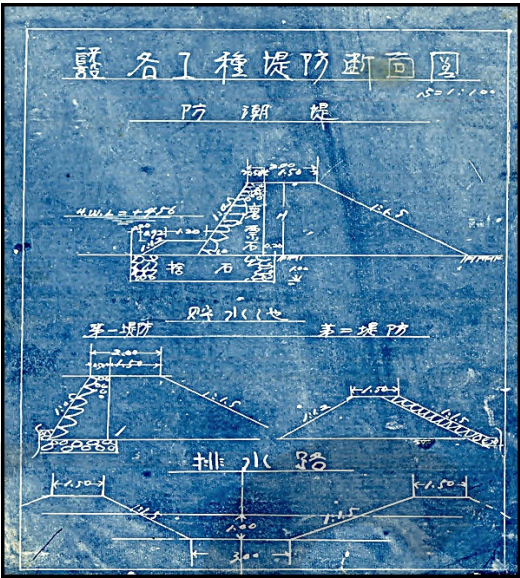


〈그림 7〉 1948년 대동염전 공유수면점용 허가문서(총2면 중 1면)

‘공유수면 점유에 대한 건’이 공식으로 허가된 것은 1948년 2월 5일이 었다. 이 기록을 근거로 보면 실질적으로 염전 조성을 위한 공사가 시작된 것은 1948년부터라고 판단된다.

간척지를 확보하여 천일염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각종 제방을 쌓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했다. 때문에 천일염전 개발 ‘계획서’에는 ‘공중별 설계서’가 첨부되어 있다. 〈그림 8〉은 대동염전 관련 각공종제방단면도 이다.

방조제, 저수지, 배수로에 대한 규모, 경사도 등이 표기되어 있다. ‘계 획서’에는 이와 함께 염전축조 도면이 포함되어 있다. 대동천일염전축조공 사계획평면도, 비금대동천일염전조사사업계획 평면도, 방조제종단면도, 종단면 지할상세도 등이 남아 있다. 대동염전의 평면도는 〈그림 9〉와 같 다. 도면의 좌측에 ‘대동천일염전축조공사계획평면도’라 표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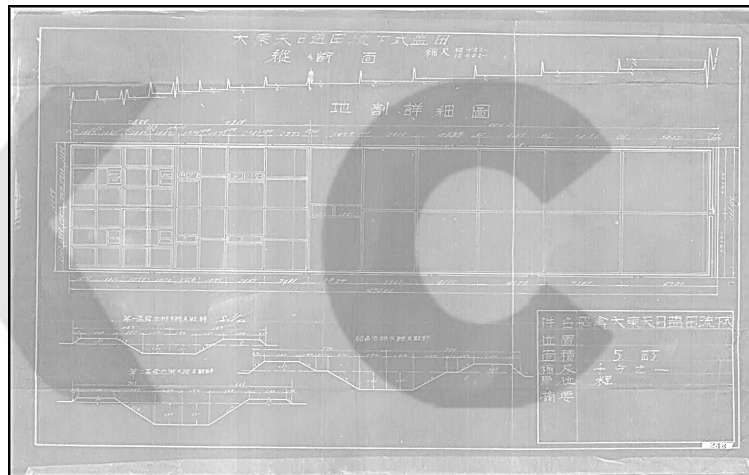
〈그림 8〉 대동염전 각공종제방단면도



〈그림 9〉 대동천일염전 축조공사 계획 평면도

대동염전 축조공사 계획평면도에는 제1증발지 6단 2열, 제2증발지 4단 4열, 결정지는 4단 6열로 이루어져 있다. 면적은 제1증발지가 1단 면적이 가장 넓고 점점 작아져서 1단 1칸의 면적은 도면상 결정지 12칸의 면적과 같다. 제1증발지, 제2증발지, 결정지 순으로 면적이 작게 계획되었다.¹⁰⁾

다음 〈그림 10〉은 대동염전 ‘계획서’에 첨부된 ‘지할상세도’이다. 염전의 구성공간이 어떻게 분할되었는지 규모와 구조가 명시되어 있다.



〈그림 10〉 대동염전 지할(地割) 상세도(1948년)

이러한 계획 하에 추진된 대동염전에 대한 ‘염(함수)제조허가신청서’는 1948년 10월 5일자로 제출되었다.¹¹⁾ 〈그림 11〉에 해당한다.

10) 다음 자료에 수록된 김준의 분석내용을 참조하였다. 최성환 외, 『비금도 천일염전의 형성과정 연구 조사보고서』,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2012, 62쪽.

11) 신안군 소장 기록물, 1949년 10월 5일자 ‘염(함수)제조허가신청서’.

〈그림 11〉 1948년 10월 5일자 대동염저 염제조허가신청서

신청서와 함께 서약서가 첨부되어 있다. 전매령을 준수하고 예정 기간 내에 염전축조를 완성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다. 생산 및 납부성적이 불량한 때와 전매국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염전을 조합명의로 등록하지 못할 시 등에는 허가를 취소해도 좋다는 단서조항이 수록되어 있다. 이 서약서에는 명승주, 이재호, 김세현, 김행기, 박문옥, 이기형, 이삼만, 이금일, 김귀석, 이향복, 김형옥 총 11명이 대표로 도장을 찍었다.¹²⁾

대동염전 신청서에 대한 ‘민제천일염제조 허가신청자 조사서’가 1948년 11월 29일자로 작성되었다.¹³⁾ 그 결과 대동염전 축조는 1949년에 1월에 공식으로 인가가 났다. 1949년 1월 9일자 재무부전매국장 명의로 ‘천일염 제조허가신청서진달에 관한 건’이라는 문서가 남아 있다.¹⁴⁾ 허가 면적은 ‘계획서’와 동일하게 공유수면 227,462평, 저수지면적, 101,186평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대동염전 축조공사진보상황조사서’라는 문서가 남아 있다. 조사 시기는 1949년 3월 30일이다. 전매국에서는 축조 허가를 해준 후 진행상황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공사 총예산금에서

12) 신안군 소장 기록물, 1949년 10월 5일자 ‘서약서’.

13) 신안군 소장 기록물, 1948년 11월 29일자 ‘민제천일염제조 허가 신청자 조사서’.

14) 신안군 소장 기록물, 1948년 1월 9일자 ‘천일염제조허가신청서진달에 관한 건’.

진행된 사업비, 남은 사업비 등을 확인하여 기록하고 있다. 또한 세부적으로 공사비 집행 명세서가 작성되어 첨부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물을 토대로 볼 때 대동염전이 1차적으로 완성되고, 천일염을 생산한 시기는 1949년부터이다. 이후 대동염전은 1950년 이후 여러 차례 확장공사를 진행하여 오늘날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1950년 5월 명승주 조합장이름으로 확장공사 신청서와 1952년 3월 15일자 확장허가에 관한 문서 등이 남아 있다.¹⁵⁾ 오늘날의 대동염전은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신안군 대동염전의 모습(신안군 제공)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천일염전의 개발은 매우 체계적인 계획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가능했다. 자연환경의 기반위에 ‘염전 축조 기술’과 ‘자본’, ‘노동력’이 합쳐줘야 하는 것이 천일염전 개발활동이었다. 그렇다면 대동염전을 조성할 수 있었던 기술적 배경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광복이후 비금도 지역에는 천일염전 개발 기술 전파와 관련하여 두 가지 주목되는 움직임이 있었다. 첫째는 1호염전을 성공한 후 손봉훈이 주도하여 운영한 ‘수림천일제염기술원조합’의 활동이고, 둘째는 정부에서 비금도

15) 신안군 소장 기록물. 1948년 5월 ‘염(함수)제조허가신청서’, 1950년 3월 15일자 ‘천일염 전시설확장허가에 관한 건’ 문서 등이 확인된다.

에 ‘제염기술원양성소’를 설치한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인근지역의 천일염전개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지만 대동염전 개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후자는 대동염전이 1차적으로 조성된 이후 1950년 상황이다.

결국, 수림리 1호염전을 개발할 때 참여한 사람들과 제염기술원양성소에서 육성한 사람들 외에도 비금도에는 천일염전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비금도 사람들 가운데는 일제 강점기에 평안남도 일대의 염전으로 일하러 간 사람들이 다수 있었다. 그들이 광복 후 고향으로 돌아와서 천일염전 개발에 뛰어들면서 여기저기 염전이 동시다발적으로 조성되는 흐름이었다.¹⁶⁾

그렇다면 비금도에서 유례가 없던 엄청난 규모의 대동염전을 만드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기술자는 누구였을까? 현재 남아 있는 기록물을 통해서 염전개발 기술자가 누구였는지와 관련된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때문에 대동염전 개발과 관련하여 초기 공사 기술자로 활동한 인물에 대해서는 비금도 주민들의 구술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대동염

〈표 3〉 대동염전 조성 참여자들의 개발당시 상황 구술내용

구분	구술내용
원뚝조성	450여 주를 만들었고, 1주(집)에 한명씩 나와 돌을 날라 원뚝을 만들. 인근 산에서 돌을 지게로 날라서 방조제를 쌓는데 활용. ‘만보통’이라는 것을 가지고 큰 돌을 가지고 온 사람과 작은 돌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여 도장을 찍음. ‘박입하’라는 도고리 분이 만보통 관리. 박입하는 6.25때 공산당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희생됨. 처음에 막은 원뚝은 사람 손으로 대충 만들다보니 갈라져서 큰 낭패를 봄.
염전조성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여럿이 와서 염전 만드는 일을 도움. 나배리 박문옥이 맨 처음 공사부장을 맡음. 대성염전이 다 완성되기 전에 맹장(추정)으로 갑자기 사망함. 가산리 이학산, 도고리 김명출 등이 공사부장을 지냄. 학벌도 좋고 공고도 졸업한 사람들이었음. 명일담도 공사부장을 했고, 후에 염부장을 맡아 염전 일을 관리함.

16)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인 『비금도 천일염전 개발과정과 사회적 확산』의 ‘2장 소금 생산지로서 비금도의 인문자연환경’에서 분석한 바 있어 본고에서는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전 건설에 직접 참여했던 주민 가운데 김호운(도고리, 1933년생), 최판출(도고리, 1934년생) 두 분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들이 증언한 대동염전 개발 초기 상황에 대한 요지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¹⁷⁾

대동염전 조성을 위해서는 ‘원뚝’을 조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다. 먼저 대동염전의 조합원을 모집하였으며, 조합원 한 집 당 한사람씩 나와서 운력에 참여해야 했다. 주로 원뚝을 쌓는 데 필요한 돌을 인근 야산에서 깨서 날라 오는 일이었다. 원뚝을 조성하는 일은 당시 도고리 마을에 거주하던 ‘박입하(1917년 생)’씨가 책임을 맡아서 관리했다. 최근 박입하의 후손은 집안의 구전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아버지가 대동염전을 만들었다는 주장을 본 연구자에게 제보한 바 있다. 이후 대동염전 개발과 관련하여 박입하의 행적을 찾기 위해 관련 문서를 살펴봤지만 ‘박입하’라는 이름을 확인하지 못해 미궁에 빠져있는 상태였다. 다행히 같은 도고리 마을 출신 당시 참여자들의 증언에서 박입하와 관련된 내용이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김호운과 최판출은 박입하가 원뚝을 만들 당시 ‘만보통(운력 참여일지)’ 관리자였다고 기억하고 있다. 박입하는 참여주민들을 관리하면서 원뚝 조성에 기여하였다. 다만 이후 실제염전을 축조할 때 공사를 주도한 기술자는 아니었다고 증언하였다.¹⁸⁾

한편 원뚝 조성할 때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금도 간척사 연구와 관련된 된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구술 내용이 실려 있어 주목된다.

노동력을 제공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같은 노동력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었다. 가령 50kg의 돌을 옮겼을 때 1번의 노동력으로 인정한다면 100kg의 돌을 한꺼번에 옮기면 2번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 일을 할 때마다 도장을 받았는데 이를 ‘만보’라고 한다. 즉 50kg 돌을 옮기면 도장을 한 개 받고 100kg 돌을 옮기면 한꺼번에 2개의 도장을 받는 것이다. 20개의 도장을 받으면 하루 노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따라서 하루 종일 일을 하였더라도 20개의 도

17) 2016년 8월 15일 인터뷰 내용.

18) 염전개발을 위해 최초로 원뚝을 조성할 때 ‘박입하’씨가 책임자였기 때문에 “대동염전을 만들었다”는 구전이 후손들에게 전해오는 것 같다.

장을 받지 못하면 하루 노동력을 다 채우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¹⁹⁾

매일매일 도장을 찍으며 관리를 했고, 노동력 제공에 대한 원칙을 철저히 지켰던 것으로 보인다.

비금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동염전 개발 기술자로 가장 먼저 기억되는 인물은 가산리 박문옥이다. 당시 ‘공사부장’을 맡았다. 그런데 대동염전이 완성되기 전에 갑자기 사망하여 이후 여러 사람이 공사 부장으로 활동했다. 가산리 이학산, 도고리 김명출, 염부장을 지낸 명일담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학산의 경우는 ‘대동천일제염조합규약’의 맨 뒷면에 대표자로 서명한 다섯 명 중 한명이기도하다. 김호운의 증언에서 이북에서 온 여러 사람이 대동염전 조성에 참여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제강점기 북쪽의 천일염전에서 염조 축조 경험을 쌓은 섬 주민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대동염전 건설에 참여했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공사 기술자로 언급 된 인물 중 가장 주목되는 사람은 대동염전의 염부장을 지낸 明一淡이다. 그는 어린 나이에 귀성염전으로 일하러 갔었고, 황해도 등지를 전전하다 20살에 고향에 돌아왔다. 이후 대동염전 개발에 참여하였고, 염전이 조성된 후 총염부장을 지냈다. 故 명일담은 생전 본 연구자와 인터뷰에서 “지금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천일염전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측량기술이고, 염밭의 높이를 일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천일염전을 만드는 사람들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²⁰⁾

이러한 흐름 속에 대동염전이 조금씩 확대되어 갔다. 대동염전 개발 직후 비금도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 1950년 6월 14일자 동광신문에 관련 기사가 남아 있어 주목된다. 金一 기자가 쓴 ‘生産場巡禮’에 대동염전과 관련 된 내용이 실려 있다. 이 기사는 염전에 대한 신지식을 알리기 위

19)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신안군 간척사와 문화연구-비금면, 도초면-』, 신안군·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2015, 102쪽.

20) 故 명일담 구술내용(2003년 9월 18일 면담).

해 기획 된 것으로 6월 10일 광주전매지국 문완식 지국장을 비롯한 시찰단 13명이 “천일염전의 대표지로 그 이름이 높은 비금도”를 방문하고, 현지 관계자들과 면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도한 것이다. 1950년 6월 10일은 6·25가 발발하기 약 2주 전 상황에 해당된다. 전쟁 직전 비금도 상황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시찰단을 마주 나온 인물은 조합장 ‘明承朱’와 부조합장 ‘劉沃祐’였다.²¹⁾ 시찰단은 대동염전을 처음 본 소감을 다음과 같이 남겼다.

無望千里 엄청난 규모에 놀랐고, 섬과 섬 사이를 막아서 제방을 쌓고 거기에서 염전을 만들었다는 면에서 사람의 힘이 위대함에 다시 한번 놀랐다.

이 기사에 실린 당시 대동염전의 특징과 생산현황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1950년 대동염전 현황²²⁾

구분	관련 내용
조합장	명승주
대동천일제염부조합장	유옥우
염부장	명일담
염전 규모	총면적 180정보, 저수지가 60정보, 채염 중인 것이 75정보
염전 확대계획	100여 정보 금년 8월말 완성
참여인원	종업원 70여 명
생산량	연산 4만~5만 가마 소금생산
채염주기	날이 좋은 날은 7일, 평균 10일이면 소금생산

1950년 당시 대동염전은 180정 규모였고, 100여정이 추가로 완성될 예정이었다. 1년에 4만에서 5만가마를 생산하고 있었다. 또한 이 신문기사

21) 유옥우는 비금 출신으로 국회의원 5선을 지낸 유명인사이다. 당시 신문기사에는 대동천 일제염부조합장으로 소개되어 있다.

22) 『동광신문』, 1950. 6. 14.

가 흥미로운 점은 다른 기록에 잘 남아 있지 않은 최초 비금도 천일염전 개발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이 섬에 무려 38개소의 염전이 있는데 그의 시초는 비금면 구림리에 거주하는 손장교²³⁾ 박삼만 양씨가 왜정시에 평남귀성염전에 가서 천일염전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고 돌아와 1945년 봄부터 약 2정보의 염전을 개발하였다. 동리 사람들은 다 미친 짓이라고 조소하였으나 양씨의 불철주야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아 오늘의 결정을 보게 된 것이다. 이것이 곧 이 섬의 천일염전의 시초이다.

이 글은 비금도가 지닌 천일염전 개발의 메카로서의 상징성을 보여준다. 또한 대동염전이 개발되기 직전 섬 주민들의 인식변화를 엿볼 수 있다. 비금도에 당시 38개소의 염전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숫자이다. 1호 염전 개발 당시만 하더라도 천일염전에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았는데 성공 이후 비금도 주민들의 천일염전 개발에 관심이 증폭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기사에는 대동염전 개발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천일염전의 편리함과 소액의 경비로써 많은 소금이 나옴을 안 도민들은 해방 후 일제히 개발을 시작하여 민영염전으로는 남한굴지의 대천일염전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또한 이 신문은 대동염전의 규모가 “남한 제3위의 것”이라고 표현하고, “당시 면장으로 있는 현 조합장 명씨를 비롯하여 오백세대의 부락에서 매일 한사람씩이 나와서 피땀을 흘렸던 것이 지금도 세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기사에 나오는 ‘명승주’가 대동염전의 개발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1946년 4월 17일부터 1946년 12월 20일까지 제5대 비금면장을 지냈다.²⁴⁾

23) 손봉훈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손씨 집안에서는 손봉훈을 ‘손진교’라고 불렀는데, 기자가 잘 못 표기한 것 같다고 제보하였다. 손봉훈 차남 손태호 고증 내용.

24) 신안군 비금면 행정 자료.

면장을 맡아서 비금도 주민들의 경제발전을 위해 대규모의 천일염전 개발에 앞장 선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는 면장을 그만두고 대동천일제염조합의 조합장으로 활동하였다. 기록이 남아 있는 1956년판 『全國主要企業體名鑑』에도 ‘大東天日製鹽組合’의 대표로 명승주의 이름이 남아있다.

이 신문기사에는 염부장 명일담이 소개하는 대동염전의 소금생산과정이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해수가 저수지로부터 난치(제1증발지)를 지나 늦태(제2증발지)를 거쳐서 결정지로 들어간다. 면적은 난치가 60% 늦태가 25% 결정이 15%이며 날이 좋은 날은 7일 그렇지 않아도 10일이면 바닥에 반작반작 백금과 같은 결정이 되어간다. 천일염전은 다른 사업과 달라서 한번 완전한 시설을 해 놓을 것 같으면 자자손손 물려가며 먹고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우스면서 이야기 한다.²⁵⁾

당시에 소금생산을 위해서는 최소 10일, 날씨가 좋은 날에는 7일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염부장 명일담의 예언처럼 한번 설치된 천일염전은 67여년이 지난 지금도 섬사람들의 중요한 생계 기반이 되고 있다.

4. 섬 지역 사회적 가치와 활용 방안

이제 섬 주민들의 사회상에서 대동염전이 지닌 가치와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 살펴보겠다. 먼저 사회적 가치 부분이다. 크게 ‘염전 개발의 성격’, ‘공동체 문화’, ‘섬 주민의 경제적 기반’, ‘현 운영 주체’, ‘근대문화유산’이라는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첫째, 대동염전은 순수 민간 주도로 만들어진 대규모 염전이라는 점이다. 광복이후 남한지역의 대규모 염전은 대부분 한국전쟁 발발이후 전후 정책적으로 조성된 곳이 많다. 소금증산의 필요성과 함께 피난민 정착을

25) 『동광신문』, 1950. 6. 14. ‘生産場巡禮’ 기사.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1951년 당시 정부에서는 난민구호를 목적으로 신축 간척지에 대규모 염전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²⁶⁾ 우선 대규모로 당시 전남 무안군의 해안가 간척지에 천일염전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국가정책의 흐름에 편승하여 한국전쟁 후 섬 지역에서 대규모 천일염전 개발 사업이 성행하였다. 현재 국내 단일염전 가운데 최대 규모로 알려진 현 신안군 증도면의 태평염전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1953년 한국전쟁 피난민들을 정착시키기 위해 전증도와 후증도 사이의 갯벌에 독을 쌓아 대규모 천일염전이 조성되었다. 그에 반해 대동염전은 광복이후 민간으로 염전개발권이 개방되면서 비금도의 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합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낸 것이다. 섬 주민들 스스로가 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경제활동의 근간을 개척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이다.

둘째, 대동염전 개발과정에는 섬사람들의 공동체 문화가 담겨있다. 대동염전은 특정 마을이나 동족 성씨들이 만든 게 아니라 여러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여 개발한 것이다. 현 신안군 소장 기록물 가운데에 ‘조합원명부(대동천일제염조합)’ 문서가 남아 있다. 18쪽에 걸쳐 조합원의 이름이 적혀있다. 총 450명에 해당된다.²⁷⁾ <표 5>는 이 기록물을 토대로 대동염전 조합원 명단을 정리한 것이다.

<표 5> 450명 대동염전 조합원 명부

마을명	참여인원	성명
光大里	43명	이문죽 이철선 이복현 이만섭 김대철 강대운 이학기 신시회 김동수 김용술 김남출 김재룡 박판국 김상호 김봉섭 김록태 김군봉 김용겸 김상안 김봉이 김행기 김수일 김삼현 김유용 김길중 김근담 유달봉 유문대 김상복 김득구 김도포 김덕산 김상구 김규태 김향민 김남태 유성봉 이형갑 이규산 김광수 김문석 김세현 김정섭

26) 『자유신문』, 1951. 10. 28.

27) 대동천일제염조합원 명부에 마을별로 참여자의 이름이 표기 되어 있다. 중간에 지당리 회원 이름이 적여 있는데 맨 마지막에 조합장이었던 명승주의 이름이 따로 적혀있는 것으로 보아 상징적으로 마지막에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름이 한자로 표기되어 있는 데 글씨가 작고 수기로 써져 있어 판독이 어려운 이름은 ‘○’표시를 하였다.

[illegible]

참여한 마을 만 하더라도 12개 마을(光大里, 道古里, 佳山里, 池堂里, 新光里, 古西里, 內月里, 德山里, 旧村里, 竹林里, 龍沼里, 水大里)이나 된다. 대동염전 인근 마을뿐만 아니라 덕산리, 내월리, 수대리 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까지 망라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대동염전은 특정 지역의 주민들이 권한을 지닌 염전이 아니라 비금도 전체 사람들이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조합의 공식 명칭은 ‘大東’이지만 성격으로 볼 때 ‘大同’의 의미가 가장 잘 어울리는 염전이다. 대동염전은 광복이후 민간으로 개방된 천일염전 개발 시대를 스스로 열어가는 하나의 상징 같은 것이었다. 섬에서 공유수면에 대한 사용은 주로 그 지역 주민들의 전유물로 권한이 인정되어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대동염전의 경우는 그러한 면에서도 큰 변화를 시사한다. 워낙 대규모 작업이었기 때문에 비금도 전 지역의 주민들이 고르게 참여하였다. 대동염전은 섬 마을의 공동체 문화를 계승한 것이면서도, 그 전에는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형성 사례를 보여준다.

셋째, 대동염전을 비롯한 천일염전의 개발은 광복 이후 섬 주민들이 다시 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요한 경제기반으로 작용했다. 아래 제시한 <표 6>²⁸⁾은 현 신안군 가운데 1944년과 1949년 5년 차를 두고 섬 지역 인구증가율을 염전개발지역인 비금면과 염전이 없는 흑산면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것이다. 비금면은 내해에 속한 섬이고, 흑산면은 원해에 속한 도서로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내해 섬들은 대부분은 염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내해와 원해의 대표 섬을 비교하는 방식을 취했다.

<표 6> 비금면과 흑산면 1944년과 1949년 인구증가율 비교

면도	년도	인구수	남성	여성	인구증가	비고
비금면	1944년	10,584명	5,011명	5,573명	2,102명	염전개발지역
	1949년	12,686명	6,233명	6,453명		
흑산면	1944년	9,601명	4,636명	4,965명	282명	비 염전지역
	1949년	9,883명	4,879명	5,004명		

28)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인구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흑산면 지역의 인구가 282명 증가 한 것에 비해 비금면 지역은 2,102명이 증가하였다.²⁹⁾ 이러한 통계적 수치만 보더라도 천일염전의 개발이 섬 주민들의 정주조건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 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대동염전이 그 중심에 있고, 대표적인 상징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대규모 염전이지만 지금도 주민들 소유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동염전은 조성이후 확대와 분할의 복잡한 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에는 주민들 간의 갈등과 협의의 진통이 따랐다. 대동염전은 한때 특정인이 대다수의 염전을 소유하기도 했으나 대소유자가 사망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다시 분할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³⁰⁾ 한때 대동염전의 최대 소유자였던 명만술의 공로이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대동염전 소유권을 주민들에게 다시 양도하여 소유권이 지역 주민들에게 분산되었다. “원래 주민들이 힘을 합쳐 만든 염전이니 주민들에게 소유권이 돌아가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³¹⁾

다른 대규모 염전의 경우 사기업화 된 곳이 많다. 대동염전은 대규모 염전임에도 실 소유자가 여전히 섬 주민들이라는 면에서 맨 처음 개발 당시의 목적을 지금도 계승하고 있다. 현재도 대동염전조합이 유지되고 있다. 조합원들은 소유 염전 1정당 10만원씩 회비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 그 공금은 대동염전의 유지 관리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다.³²⁾

다섯째,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크다. 대동염전은 2007년 11월 22일 등록문화재 제362호로 등록되어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이미 인정받았다. 공식 등록 명칭은 ‘신안 비금도 대동염전’이고, 신안군 비금면 가산리 213-35번지 외 453,131㎡의 면적이 지정되었다. 등록문화재는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근대문화유산의 가치를

29) 실제로 흑산면에 속한 도서가 훨씬 많기 때문에 비금면의 인구증가율이 높다는 점은 시사점이 있다.

30) 신안군 소장 관련 기록물에는 대동염전의 분할과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주민들의 협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들도 남아 있다. 명만술씨가 1962년 무렵 대동염전의 2구~4구 지역 염전을 인수 소유하였다가 1969년 무렵 지역주민들에게 다시 양도하였다.

31) 고 명만술의 며느리인 최향순 증언 내용.

32) 2016년 8월 15일 대동염전 조합장 김형준 인터뷰 내용.

지니고 있으며,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 대동염전이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는 어떤 것일까? <표 7>은 등록문화재 심사 당시 조사자들의 의견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7> 등록문화재 심사 당시 대동염전 조사자 의견 요지

조사자 유형	조사의견
A(근대사)	지역의 450세대 주민들이 염전조합을 결성하여 조성한 염전. 규모나 ‘인문적 경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염전 중에서 매우 뛰어난.
B(조경계획)	떡메산과 어우러진 대동염전을 연계한 염전체험 교육장내지 관광자원으로 활용가치가 큼.
C(조경계획)	전통적 식생활의 생산수단 유적이라는 관점 중요. 자연과 문화가 만나서 형성된 경관자원 측면에서 중요. 근대 한국문화의 전형성을 중시하는 시각에서 보존 가치 높음.
D(근대건축)	떡메산에서 바라본 대동염전의 경관이 뛰어나. 한국의 천일염전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줌. 근대가 남기고 현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인문적 경관”으로서 가치가 뛰어나. 현재도 제염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살아있는 근대유산”임.
E(식품공학)	대규모 염전임에도 지역 주민들에게 소유권이 있음. 지역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대동염전의 개발 뒤에 대성염전, 남일염전, 중앙염전, 나무섬염전 등이 만들어져 530ha에 이르는 대규모 염전지대 형성. 떡메산에서 바라본 경관요소도 매우 우수함.

전반적으로 지역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근대문화유산으로 가치를 평가하고 있으며, 떡메산과 어우러진 경관적 가치 또한 장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동염전이 지닌 가치는 건축적인 측면과 생활사적인 측면에서 돋보인다. 앞장에서 언급했듯이 해안가와 주변의 섬을 연결하여 간척지를 조성한 후 대규모의 염전을 조성했다. 이는 섬 지역 간척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례가 되는 것이고, 당시 염전 개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대규모의 염전을 민간에서 조성했다는 것 자체가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지녔다. 무엇보다 생활사적인 측면에서 광복 후 섬으로 돌아온 사람

들, 섬을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보여주는 경제활동의 면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끝으로 이러한 가치를 지닌 대동염전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대동염전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가치를 홍보하고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쉽게도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후 10년이 지났지만 대동염전의 보존과 활용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같은 시기에 등록된 증도 태평염전에서 소금박물관과 체험 활동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대동염전의 경우는 어떤 시설이나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신안군에서 2014년에 『태평·대동염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실천되지는 못한 실정이다.

먼저 대동염전의 가치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를 뒷받침하는 각종 자료를 축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신안군에서는 현재 비금도에 천일염 역사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반드시 성사되기를 바란다. 다만 건물을 세우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콘텐츠를 담을지 미리 고민해야 한다. 특히 대동염전과 관련 된 민간 자료를 사전에 수집하고, 그를 통해 신안군의 천일염전이 지닌 역사성과 가치를 분석하는 과정이 정책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역사관 건립과 동시에 신안군이 소장하고 있는 천일염전 개발관련 기록물과 민간자료를 묶어서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가지정기록물’은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민간기록물 중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광복이후 부족한 소금생산을 극복하고, 섬에서의 경제활동을 위해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 낸 천일염전 개발관련 문서들은 국가지정기록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대동염전 관련 문서들이 그중 핵심이 될 것이다. 천일염 역사관 건립과 국가기록물지정을 위한 노력은 한국사회에서 천일염전이 지닌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천일염이 지닌 상품가치를 높이는 데

도 기여할 것이다.

자료화와 함께 대동염전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의 보급도 필요하다. 체험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면 염전 주변의 위생이나 환경관리는 더 붙어 상승되는 효과가 있다. 직접 현장을 목격하고 천일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면, 대동염전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비금도 가산리 대동염전 측면에 자리한 떡메산에는 대동염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시설과 연계하여 대동염전 내에서 소금체험장을 상설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무엇보다 대동염전의 미래를 위해서는 주민공동체의 유지와 활성화가 필요하다. 대동염전이 문화재로 등록되었지만 ‘대동염전’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공동체적 움직임은 부족하다. 지금도 대동염전조합이 유지되고 있기는 하나 소금 생산과 판매는 분할되어 있는 개별염전 운영자 별로 제 각각이다. 12개 마을 450명의 인원이 힘을 합쳐 조성했던 대동염전의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여 이를 ‘브랜드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동염전에 소속된 각 염전이 지역주민 소유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반면 이를 조직적으로 홍보하고 마케팅 하는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극성이 떨어져 있는 느낌이다. 프랑스의 게랑드가 브랜드화되어 있듯이 대동염전 자체를 브랜드화 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대동염전 기념사업회’와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대동염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브랜드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대동염전에 얽힌 이야기 자원을 활용하면 생생한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 그러한 노력이 기반이 되어야만 한국의 천일염전이 지닌 역사성과 가치가 올바르게 인식되고, 나아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시도에도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5. 맺음말

비금도 대동염전 개발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광복 후 한국 근현대사

의 한 단면과 섬 지역 사회상을 살펴보았다. 광복 후 남북분단으로 남한 사회는 소금부족 현상이 심각했고, 특히 어업이 발달한 섬 지역에서 소금 생산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했다. 이에 정부는 민간차원의 염전개발을 권장하였고, 그러한 흐름 속에 대동염전이 개발되었다.

본고에서는 염업관련 기록물 분석을 통해 대동염전 관련조합, 규약, 공사 계획, 간척지 확보와 염전시설 도면 등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대동염전은 1949년 처음 기초가 완성된 이후 몇 차례 확대 과정을 거쳤다. 주도한 인물은 면장 출신 명승주였다. 간척지를 확보하기 위한 원뚝 조성 관리자는 박입하였고, 염전 공사 기술자로는 박문옥·이학산·김명출 등이 활약했다. 명일담은 개발 기술자로도 참여했고, 총염부장을 맡아 대동염전을 관리했다. 총 참여인원은 450명의 비금도 섬 주민이었고, 단순히 조합원으로 자금만 출자한 것이 아니라 염전개발에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했다.

대동염전이 지닌 섬 사회적 가치는 크게 다섯 가지 측면에서 살폈다. 첫째, 다른 대규모 염전이 한국전쟁기 정책적 측면에서 조성된 것에 반해 섬 주민들 스스로 개척했다는 점. 둘째, 특정 마을이 아닌 섬 전체 주민이 참여한 점. 셋째, 섬에서 정주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으로 작용한 점. 넷째, 현재까지도 주민 소유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다섯째, 광복 후 생활상과 사회상을 상징하는 근대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그 배경에는 광복 후 남북분단으로 인한 한국사회의 특징, 소금생산지로서의 섬사람들의 전통이 반영되어 있다.

2009년 천일염이 광물에서 식품으로 공인 된 이후 천일염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졌다. 그러나 그동안 천일염에 대한 홍보가 너무 식품적인 측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점은 재고되어야 한다.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되어야 한다. 섬과 소금생산의 역사성, 천일염전이 지닌 문화적 가치 등이 제대로 연구되고 그 성과가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인문학적 연구 성과가 ‘이미지 마케팅 전략’에 활용된다면 한국의 천일염이 지닌 상품가치는 더 높아질 것이다.

한편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천일염전의 개발과 섬 지역 로컬리

티의 관련성 문제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비금도는 한국전쟁시기 민간인 희생 사건이 다수 발생했던 지역이다. 연구 과정에서 광복이후 비금도 사회상과 염전 노동자의 존재 사이에 뭔가 기묘한 긴장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한국전쟁기 섬 주민들은 도고리 마을을 “작은 모스크바”로 부르기도 했다.³³⁾ 대동염전 원뚝 조성에 참여한 박유하의 경우도 그러한 긴장관계 속에 억울하게 희생된 인물로 추정된다. 또한 최초 1호염전 개발에 참여한 박삼만도 1948년 이후 좌파로 낙인찍혀 섬을 몰래 떠나야만 했다. 이러한 분야도 섬 지역 소통과 갈등에 대한 문화상을 살피는데 중요하게 다뤄야 할 연구과제가 되었다. 앞으로도 염전 개발과 운영 내력에 얽힌 연구를 통해 섬 주민들의 생활상과 광복 후 근현대 전환기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세부적으로 살피는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33) 도고리 마을 김호운(1933년생) 구술내용.

참고문헌

1. 자료

신안군 소장 염업관련 문서철
동광신문 외 근현대 신문 자료
비금도 주민 소장 염업관련 자료

2. 저서

신안군·도서문화연구원, 『신안군 간척사와 문화연구- 비금면, 도초면 -』, 2015.
비금초등학교 총동문회 문집편찬위원회, 『飛禽敎』, 비금초등학교 총동문회, 2010.
윤형숙 외, 『소금과 새우젓』, 민속원, 2010.
신안군, 『태평·대동염전 종합정비계획』, 2014.

3. 논문

김 준, 「소금과 국가 그리고 어민」, 『島嶼文化』 20,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002.
문병채, 「비금도의 간척지 조성과정과 그 영향」, 『島嶼文化』 19,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002.
박정석, 「천일염의 생산과정과 유통체계 그리고 정부정책-전남 신안군 비금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島嶼文化』 34,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009.
유승훈, 「20세기 초 일제의 소금정책과 생산체제의 재편」, 『국학연구』 6, 한국국학진흥원, 2005.
최성환, 「비금도 천일염전 개발과정과 사회적 확산」, 『島嶼文化』 40,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2012.
_____, 「천일염전 개발과정을 통해 본 섬사람들의 이주 현상과 공동체적 특징」, 『서강인문논총』 41,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2014.

〈Abstract〉

**The Process of Developing Daedong Salt Field in Bigeumdo
after Liberation of Korea from Japanese Colonial Rule and Its
Social Value**

Choi, Sung-Hwan

This paper studied the process of developing Daedong Salt Field in Bigeumdo and examined an aspect of modern life of Korea after its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and the social aspect of an island region. The study was conducted in three directions. First, it reviewed the social background after liberation and the process of developing a salt field. Second, it analyzed the process of developing Daedong Salt Field. Third, it reviewed the social value of Daedong Salt Field. To reach the goal of the study, records related to salt manufacture kept in Shinangun County were analyzed,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resi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development.

After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 salt deficiency was severe and especially in island regions where fishing was developed, there was more urgent necessity to produce salt. So the government recommended the development of salt fields at nongovernmental levels, and against that backdrop, Daedong Salt Field was developed. This paper analyzed documents related to salt manufacture and reviewed associations related to Daedong Salt Field, regulations, construction plans, securing reclaimed land and floor plans for facilities of salt field. Daedong Salt Field went through several expansion processes after its basis was completed in 1949 and the person in charge was Seungju Myung, who used to be a head of a town. The person in charge of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seawalls was Ipha Park and engineers for the construction of the salt field included Munok Park and others. Ildam Myung took charge of the whole management of laborers in the salt field. The Social value of Daedong Salt

Field was viewed from 5 aspects: 'the characteristics of salt field development', 'community culture', 'economical basis of the residents in the island', 'the main agent of the current operation', and 'the heritage of modern culture'. Daedong Salt Field is significant in that islanders themselves built a new community and pioneered a basis of their economic activities for themselv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tried the first analysis of historical records on the development of Daedong Salt Field, which has only been handed down orally.

* Key Words: Daedong Saltern, Salt, Island, Bigeumdo, Saltern Development

· 논문투고일: 2016년 10월 17일 · 심사완료일: 2016년 11월 21일 · 게재결정일: 2016년 11월 25일

KCS I